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兼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 로 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봄이 싱그러운 棟樑의 産室



5월의 冠岳캠퍼스 싱싱한 푸르름에 힘입어 冠岳캠퍼스. 그러나 過密로 제2캠퍼스 造成이 시급한 실정이다.

冠岳春秋

5월은 季節의 女王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新綠의 5월을 맞아 母校
校庭은 온갖 꽃과 잎으로 아를담기
그지 없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은
그나 철쭉, 서부해당화 등이 꽃피고
있고 새 잎이 서로 겹겹하고 있어
그럽기 그지 없다. 1975년 모교
가 冠岳캠퍼스로 이전했을 때만 해
도 周邊은 삼막하기 그지 없었고 冠
岳山의 火氣마저 느끼게 했으나 15
년이 지난 지금은 庭園樹들이 알맞
게 자라 싱그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同窓會에서는 사막하기만 했
던 校庭에 植樹運動을 전개하
여 綠化事業을 벌이기도 하였
다. 그동안 심은 서부해당화는
그 곱꽃을 한창 피우고 있으
며, 느티나무도 싱그러운 잎이
나오고 있다. 순환도로변에 심
은 銀杏나무도 잘 자라 싱그러
움을 주고 있다. 移轉初期에 綠
陰을 만들어 주었던 버드나무
들은 公舍를 이유로 거의 벌채
되었고, 많은 高價庭園樹가 자
라 이제 더 補植할 공간조차
없어 동창회의 植樹運動도 중
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兵舍를 연상케 했던 規格品
인 初期期 건물들도 이제 庭園
樹에 가려 운치를 더해 주게 되
었으며 文化館, 奎章閣 圖書館,
菊山圖書館, 博物館 등의 독창적인
건물이 들어서 劃一性 單調性을 탈
피케 하고 있다. 옛날 폐허처럼 보였
던 건물들에 새로운 모습의 研究棟
이 들어섰고 解京經營館, 湖巖生活館
등이 준공되어 이용공간면적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 社會科學圖書
館 건물과 法學研究棟 등이 연내 완
공을 바라보고 있어 건물규모면에서
도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空間計劃이 대폭
어긋나게 되었고, 建築密度의 過密에
서 오는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다. 당
초 1만명 정도를 수용할 豫定이던
캠퍼스가 3만명을 수용하게 되어
잔디밭이 잠식당하게 되었고 建物周
邊의 소운동장들이 駐車空間으로 전
용되게 될 정도로 되고 있다. 순환도

무럭무럭 자라는 母校

로를 비롯 한 道路가 駐車場化 한 지
는 이미 오래고 敎授師조차 駐車場
을 찾지 못하여 강의시간에 지각하
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넓은 잔
디밭, 골프장의 그 정취가 사라지고
머지 않아 도시의 시멘트건물들이
集하는 삭막한 상태를 드러내게 되
었다.

모교는 그동안 學生定員의 증가와
각종 건물의 需要增加 때문에 제2캠퍼
스의 建立을 연구 검토해 왔다. 가
까이는 보라매공원과 日海研究所 부
지, 밀리는 七寶山 演習林을 研究해
보기도 했으나 首都圈 인구집중억제
라는 政府政策 때문에 빛을 보지 못
했다. 근자에는 農業生命科學大
學의 移轉・綜合化를 위하여
冠岳山 演習林에의 이전이 추진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정책과
開發制限地域保全이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서울대학교의 綜合化를 완결
하고 세계적인 大學院大學의
育成을 위하여서는 政策當局者
의 발상의 大轉換이 요망된다.
大學院大學의 경우 研究시설이
많아야 하는데 工科大学의 확
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冠岳캠퍼
스로는 태부족하다. 현재 들
어서고 있는 소규모 研究棟이
아닌 대단위연구시설이 建立되
어야 하겠다. 사실이지 孔陵洞
에 있었던 舊工大는 敷地만도
30만평이 넘었다. 현재의 冠岳
캠퍼스의 總可用面積이 40만평밖에
안되는 것을 볼때 綜合化로 敷地가
줄어든 안타까움이 크다. 현재의 農
業生命科學大學의 敷地도 몇십만평
이 되고 있어 실제적 綜合化를 위하
여 제2캠퍼스를 조성하거나 冠岳演
習林에로의 轉장이 불가피하다.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로 人口移轉
要因은 크지 않으며 敎育施設과 運
動施設의 개발제한지역에의 건립은
그 예들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政府
는 母校의 飛躍의 발전을 위하여 과
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요, 科學
發展을 위한 충분한 投資가 행해져
야 하겠다. 韓國經濟와 學問의 발전
을 위하여 母校가 5월의 樹木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어야만 하
겠다.

1百億科學技術研究基金 조성에同參을...

出捐하신 金額은 全額 損費 처리를 받습니다

재단법인 冠岳會 이사장 崔主鎭

朝興銀行계좌번호... 397-03-001565
新韓銀行계좌번호... 343-38-900033

우리 同窓會는 지난 3월28일 定期總會에서 科學技術研究基金 조성 決議를 하였는데, 1백억 원의 科學技術研究基金 조성 決議에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기술 개발의 위기에 처한 韓國經濟를 되살리는 것이며 우리 서울대인이 앞장서 그 불을 당기는 義務입니다.

별세 京鄉 각지에서 크고 작은 誠金이 담겨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後지지금통을 털어 보내주셨다는 어린아도 있습니다. 실로 崇厚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도

▲智光스님(사회복지법인) 500만원
▲尹在正(동문) 10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鄭宗澤(동문) 50만원

智光스님 2百萬원 · 尹在正 동문 百萬원 선뜻

동창회 副會長 2명 追加선임

鮮京 崔鍾賢 회장 · 錦湖 朴晟容 회장

117차 常任理事會서 被選舉權 인정

동창회는 지난 4월24 일 오전 7시30분 리베라 117차 常任理事會를 열



△117차 常任理事會 開會

고 準會員인 선경그룹의 崔鍾賢 회장(50년 農大입학)과 금호그룹의 朴晟容 회장(50년 文理대입학)에게 피선거권을 인정, 동창회 副會長으로 추가 선임했다.

常任부회장에 鄭宗澤 동문

總會후 次會長團회의

동창회는 지난 4월17 일 리베라호텔에서 定期總會 후 次會長團회의를 열고 常任副會長에 鄭宗澤(58년 法大卒)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동창회 活性化 새바람 기대



상임부회장 鄭宗澤 동문

崔 회장을 도와 앞으로 同窓會를 이끌어 가게 될 鄭宗澤 상임부회장은 58년 모교 法大를 졸업하고 곧바로 官界에 진출, 內務部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忠北知事 勞動廳長 農水産部長官 등 國직 11대 때 政界에 진출, 3選의 관록을 가지고 있

으며 독특한 달변과 人和力으로 政務1長官을 두차례나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82년 副會長으로 본會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오고 있으며 法大 同窓會에도 적극 참여해 현재 敎育長학회 理事長을 맡고 있기도

母校에 鮮京經營館 세워 기증



부 회장 崔鍾賢 동문

경기도 水原生인 崔鍾賢 부회장은 50년 모교 農大에 入學, 3년간 수학한 후 美 위스콘신대를 거쳐 시카고대 대학원을 나왔다. 62년 鮮京織物 理事로 선경그룹과 인연을 맺어 74년 그룹會長에 취임했다. 崔 부회장은 그간 石油協會長, 全經聯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장등 財界의 핵심인물로써 國內 산업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겨왔다. 특히 모교에 「鮮京經營館」을 기증하여 동문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 자신의 경영관을 담은 「도전하는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저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敎授 출신의 財界 핵심人物



부 회장 朴晟容 동문

朴晟容 부회장은 50년 文理大 社會學科에 입학, 재학중 美國 유학을 떠나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美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버클리대 조교수를 지내다 68년 韓國 大統領經濟비서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다. 71년부터 西江大 교수로 재직하다 부친의 권유로 企業人의 길을 걷게 된 朴 부회장은 이후 錦湖實業·錦湖化學 사장을 거쳐 84년부터 錦湖그룹을 이끌고 있는 재계의 실력자이다. 90년 8월 모교 발전을 위해 거액을 선뜻 회사하기도 했다.

國會議員 당선同門 축하회

法大·商大 동창회

지난 3·24 총선에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同門을 축하하는 모임이 法大와 商大 同窓會에서 열렸다.

▲法大 同窓會(회장 琴慶鎭)는 지난 4월17일 12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법대출신 당선동문 38명의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축하연은 琴 회장을 비롯 70여명의 동문이 참석, 喜慶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商大 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4월21일 12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상대출신 당선동문 11명의 축하회를 개최했다. 張 회장을 비롯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喜慶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축하회에서는 당선 동문들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崔奎南 前 모교총장 別世



제5대 모교총장을 역임한 崔奎南 박사가 지난 4월27일 오전5시 서울 靑坡洞3가 119의5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898년 開城 출신으로 延專數物科를 졸업한 그는 이후 中央大學 經濟學科, 5代民議員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학술원 원로 회원으로 일해온 崔 박사는 「원자」, 「實事求是」, 「科學思想」 등 수권의 저서를 남겼다.

崔主鎬회장 金榮國 본보 편집위원 특별對談

●崔主鎬회장은 지난 3월總會에서 第14代會長에 재선된 뒤
●1百億 科學技術研究基金을 조성,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남긴 모교教授에게 노벨賞에 버금가는 「韓國科學賞」
●을 수여하겠다고 밝힌 同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科
●學技術開發만이 위기에 처한 韓國經濟를 되살릴 유일한 길인
●라는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있는 崔회장과 본報 편집위원인
●金榮國(은근)은 社會大교수·前副總長(전 부총장)의 對談을 통해 研
●究基金의 조성계획과 운영방안 그리고 同窓會의 운영진반에
●대해 폭넓게 들어보았다.

●崔회장: 모교 學問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해서
●는 科學技術분야뿐 아니
●라 人文社會科學분야의
●연구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崔회장: 물론 현시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교수 혼자서는
●자칫 자칫 당락에 빠져
●버려 부딪히기 쉬우므로
●적어도 5명이 한조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즉
●교수 한명에 보조한명,
●그리고 학생 3명이 한
●팀이 돼서 연구를 하도
●록 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崔會
●산하에 가장 과학기술

●崔회장: 의국의 경
●우는 물론이런데, 외국
●의 여러 대학들도 이러
●한 분들을 모두 동문으로
●받아들이고 모교의 발
●전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그간 모교 總長님
●을 비롯하여 동창회 임
●원진과 여러차례 의견을
●나눈 결과 모교 발전을
●위해 큰공헌을 한 사람
●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
●정에 따라 회원으로 인
●정하자는 데까지는 대
●적으로 의견이 모아졌
●습니다.

●崔회장: 동창회장
●으로서 동문들께 당부하
●실 말씀이 있으시면.
●崔회장: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문
●들의 思考에 일대 전환
●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간 20만이나 되
●는 동문들이 과연 모교
●를 위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가 흥하면 국가도 흥하
●고, 서울대학교의 발전
●없는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
●소에도 후배들에게 「서
●울대학교를 키워라」교
●수들도 입신양명을 위
●한 학문을 버리고 나
●라와 민족을 위해 연구
●하라고 강조하고 있
●습니다.

●崔회장: 바쁘신데
●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
●셔서 감사합니다.

▲金榮國 편집위원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의
발전은 토대로 안으로
는 단순 조직을 강화하고
밖으로母校와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
운事業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이번에 어려운 동창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소감과 임기중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崔主鎬 회장: 同窓
會일만 어언 16년째이
고 회장직을 맡아온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선뜻 나서려는 분이 없
는 것 같습니다. 총회때
就任辭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갖은 애
를 써서 다저 좋은 우리
정체가 침몰상태에 직면
한 것을 보고는 이번 기
회에 서울대학교 동창회
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데 자
신성남개벽함을 한다
는 信念으로 회장직 제
의를 수락하게 됐습니
다.

科學技術개발만이 韓國經濟살리는길

“百億基金은 汎國民 인식전환의 불씨”
母校발전 없이 國家發展할 수 없다
모든大學均等 지원은 豫算의 낭비



◇ 崔 회 장



◇ 金 편 집 위 원

▲金榮國 편집위원
석상에서 1百億 과학기
술연구기금 조성계획을
장담성동문들의 전폭적
인 지지를 얻어내셨는
데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崔 회장: 과학기술
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직히 1백억원으로 한

洪慶華 기자



글·洪起倉

〈64년文理大學·모교人文大교수〉

언제나 꽃꽂이 자세를 잃지 않았던 南鶴 高錫龜 선생. 길을 걸을 때도, 식사 때도, 앉아서 있을 때도, 서서 있을 때도, 꽃꽂이 자세를 잃지 않았던 南鶴 高錫龜 선생. 어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셨던 선생님은, 해방 후 산업 사회로 치달던 격변기의 한 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안 되는 선비정신의 계승자였다. 40여년간을 오직 서화대학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교육에만 전념하신 외길 인생의 高錫龜 선생님은 조용한 가운데 의연한 한국교수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1946년 일제 식민지 교육의 본산이었던京城帝國大學이京城大學으로 개명되면서 약관 25세의 나이로 선생님은 교단에서 시작하셨고, 다음해 다시 국립서울대학교로 교명이 바뀌면서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셨다. 그 후 1983년에 정년으로 학교를 떠나실 때까지 선생님이 걸려낸 수많은 인재들이 영문과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선생님의 학덕과 인품을 새삼은 위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다.

南鶴이란 아호를 선생님이 지으셨는지 아니면 선생님과 친한 어떤 분이 지어 드렸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늘 황량한 겨울 들녘에 홀로 서 있는 하얀 鶴을 연상하게 된다. 지난 연초 선생님의 부음을 받고 필자의 뇌리에 문득 떠오른 연상은 흰 나뭇잎을 피고 날아가는 鶴을 향해 비스듬히 서서 꽃꽂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南鶴이었다. 남달리 단정하고 외로운 선생님이 주변을 흐릿하게 한 채 초연하리만큼의 여유를 지니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해방 후 민족의 대변자로서 국립서울대

한국 英文學의 개척자

南鶴 高錫龜 선생님

학교가 창건되면서 교수로 부임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간접으로 받은 수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의 마음 속에 선생님의 높은 뜻이 길이길이 기억되고 추앙될 것이다. 南鶴 高錫龜 선생님은 1919년 기미·삼일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세상에 태어나셨다. 선생님의 고대하면서 고독한 여정이 암시된 단상이 아니었다. 일제의 잔혹한 치하에서 선생님은 학교 교육을 마치시게 되었다. 일제 말기 선생님은 학생으로 강제 징용당하는 것을 거부하여 감옥에서 해방을 맞으셨다. 선비다운 기개를 보여 주신 일화다. 선생님은 일제하에서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셨지만 졸업은 해방이후인 1946년에 경성대학에서 하셨다. 선생님이 평소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하시던 일의 하나다. 물론 선생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 것은 민족의 대변자로서 국립서울대학이 창건되면서 專任이 되신 일이다. 선생님의 특출한 학덕과 학문에 대한 열의가 돋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선생님은



◇ 생존시 선생님 모습

이 개척자였다. 선생님은 개척자로서의 영광과 아픔을 동시에 맛보며 학문을 하셔야 했다. 선생님은 영문학 분야를 두루 다루면서 소개해야 하였고 이것은 개척자로서 치르어야 할 부단이었다. 선생님이 번역에 꾸준히 손을 대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었다.

필자는 대학 때 선생님의 연구실 한 모퉁이에 책상을 놓고 사사를 받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다. 하물마는 높은 신 선생님과 한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이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필자가 새삼 감개무량하다. 먼 발치에서 외경만 하던 선생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지내게 되니 자연히 친근감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도 인간적이라고 할까. 선생님은 무척 다정다

정하게 젊은 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늘 궁금하고 의아해하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생활한다는 것을 선생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선비정신의 계승자를 자임하셨던 선생님은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본주의의 물질에 떠밀리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선생님이 가정보다 학교를 더 아끼셨던 학자로 기억하고 있다. 소소한 가정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 필자가 결혼 후에 카메라를 들고 선생님의 연구실에 들렀더니 무척 놀라시면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샷을 하고 물으셨다. 학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가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힐문하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해하지 못했다. 기보다 소시민이 되어 세상을 편하게 살려던 제자로서는 그러한 선생님의 고고한 자세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변하는 세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선생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을 관조하면서 속으로 삭이려고 하셨다.

선생님은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동안 소련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죄의 문제라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신만큼 선생님은 그의 문학과 생애에 대해 심취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생애를 통해 자신의 문학과 인생을 마치 막으로 정리해보려고 하신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살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지만 작가로서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영광스런 생애를 살았던 그 문호에게서 선생님은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의 실현을 보시고 심취하셨던 것 같다. 선생님은 교육자로서는 독특한 제자를 데려온 성공적일 수 있었으나 학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끔 말씀하셨다. 작가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내듯이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자신의 문학을 전 세계에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학자로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높은 이상을 잃지 않은 선생님은 학자로서는 이상주의자였으며 이상주의자의 좌절감을 갖고 사셨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거친 겨울 들녘에 홀로 서 있는 하얀 鶴을 연상하게 하는 분이셨다.

日帝徵用거부 獄에서 解放 맞아

40여년간 母校서 後進養成

문하에 입문하여 내내 선생님의 음덕을 입고 살아온 필자로서는 선생님의 부음을 가늠하기 어려운 비탄을 맛보았지만 선생님의 학문과 교육적 공헌은 길이 빛나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해방 후 민족의 대변자로서 국립서울대

문이 좋았다는 말로 결론해 하겠다. 선생님은 영문학계로 말하면 제이 세대이셨다. 권중희, 이상하 선생님이 제원 세대를 대표하시고 고석구 선생님은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하신다. 그러나 해방 후 불모지였던 한국 영문학계로서는 두 세대가 특각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때문이었다. 이후 필자는 선생님의 음덕을 타다 드린 적이 많았다. 그 당시 고수 봉급이 워낙 박봉이었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선생님의 월급은 대부분 미리지출되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구스려웠다.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포용하여 모든 세대의 젊은이들이 선생님의 고고한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해주셨던 분이었고 고독하게 싸우셨던 분이었던 선생님의 참뜻이나 고매한 면모를 이해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기보다 소시민이 되어 세상을 편하게 살려던 제자로서는 그러한 선생님의 고고한 자세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변하는 세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선생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을 관조하면서 속으로 삭이려고 하셨다.

선생님은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동안 소련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죄의 문제라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신만큼 선생님은 그의 문학과 생애에 대해 심취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생애를 통해 자신의 문학과 인생을 마치 막으로 정리해보려고 하신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살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지만 작가로서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영광스런 생애를 살았던 그 문호에게서 선생님은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의 실현을 보시고 심취하셨던 것 같다. 선생님은 교육자로서는 독특한 제자를 데려온 성공적일 수 있었으나 학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끔 말씀하셨다. 작가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내듯이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자신의 문학을 전 세계에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학자로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높은 이상을 잃지 않은 선생님은 학자로서는 이상주의자였으며 이상주의자의 좌절감을 갖고 사셨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거친 겨울 들녘에 홀로 서 있는 하얀 鶴을 연상하게 하는 분이셨다.

이해하지 못했다. 기보다 소시민이 되어 세상을 편하게 살려던 제자로서는 그러한 선생님의 고고한 자세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변하는 세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선생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을 관조하면서 속으로 삭이려고 하셨다.

선생님은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동안 소련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죄의 문제라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신만큼 선생님은 그의 문학과 생애에 대해 심취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과 생애를 통해 자신의 문학과 인생을 마치 막으로 정리해보려고 하신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살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지만 작가로서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영광스런 생애를 살았던 그 문호에게서 선생님은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의 실현을 보시고 심취하셨던 것 같다. 선생님은 교육자로서는 독특한 제자를 데려온 성공적일 수 있었으나 학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끔 말씀하셨다. 작가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내듯이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자신의 문학을 전 세계에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학자로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높은 이상을 잃지 않은 선생님은 학자로서는 이상주의자였으며 이상주의자의 좌절감을 갖고 사셨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거친 겨울 들녘에 홀로 서 있는 하얀 鶴을 연상하게 하는 분이셨다.

한가하는 일이다. 후자의
결과는 그간 나 자신인
직접 나서서 청탁하고
또 대부분의 초대와정신
을 맡았던 학연도 있고
해서 한결도 느끼고 애
착심도 한결 커서 빠지
없이 나가고 있다. 그중
몇몇 이름을 열거해 보
면 한국교육학회, 교육사
연구회, 교육철학연구
회, 서울대학교 교육사학
회, 기초주의학회, 도산사
학연구회, 한국사회과학
교육학회, 비교교육학연
회를 이룬다. 그래서 이
덧그중 몇 연구회의 결
우는 서로 개최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몇

선인들께서 일러주신
 執中이니「一以貫之」
 純化하시오」를 비롯
 여심지어 까불지 말
 는 경주조차 나에 게
 어서는 항상 마음에
 니고 살아오는 귀한
 트침이 되고 있다。

차를 좋아하게 되면
첫일 자체도 함으로 즐
겁다. 술이나 집안안
아니더라도 전기 주전자
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양철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다가 다시 췌
아 하고 소나무 가지에
비바람 스치는 소리가
난다. 한참 끊으면 비은
뒤의 산물물 소리가 나
는 데 옛사람이 말한
『불강물의 음향』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향기를 고 따뜻한 잔
을 감싸 쥐고 차를 마시
며 호숫가 나무 그늘에
앉아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
기도 한다.

여대에서 열린 한국세이스피
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 선출됨.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姜命圭 (56년 商大)
장·母校
교수·한
국비교장
제학회장

▲金二鶴 (60년 商大)
卒·在美
서울대발
행기금상
임부이사
장(3월14일 來韓, 同발
행기금에 대한 협의를 하
고 4월26일 渡美).

▲韓弼淳 (60년 文理)
大卒·원
자력연구
소장임고
문·本會

▲趙英吉 (62년 文理)
大卒·한
국관광공
사사장
本會理事

▲吳明 (66년 工大)
卒·E·X
P·O·조
위원회
원장(최
초)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權英子 심임여성開發院長



여성개발원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
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
하고 여성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입부를 수
행하기 위해 지난 83년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거 특별법인체로 출범
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제
4대院長에 취임한 權
英子(59년 文理大卒)동
문은 창설멤버로 인연을
맺어 오늘에 이르렀다.
여성개발원을 일컫는
산증언으로 통한다. 初代
교육연구실장과 조사연
구실장을 거쳐 89년에는
副院長을 역임하기도 했
던 權은 지난 90년
5월 政務 2차관실제
2조장관으로 자리를 옮
겨 활동하다 이번 제
4대院長으로 원대복귀
한것.

「여성개발원은 산업사
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이
노동현장에 참여하게 되
고, 이에 수반되는 여성
계의 연구와 부응하여
실행된 기관입니다. 세계
적으로 이러한 기관은
드물고, 때때로 UN에서
도우리의 활동에 지대
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세계 각지에서 방문

男女공동責任지는 社會돼야 UN서도 우리活動에 關心커

책임지는 共同社會의
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다.

현재 여성개발원은 조
사연구실, 교육연구실, 자
원개발실, 정보자료실, 사
무국 등 4실 1국에 1
백80여명의 임직원이 업
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
사회, 자원위원회 등이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고

비록해 남녀고용평등법
과 母子福祉法의 제정,
탁아제도 정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
정, 매몰장지법의 제정
작업 추진 등 그간 여성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의 복지향상
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權은 장 시대
를 맞아 그의 여성계에

다양하면서 특히 그간
의 성과가 死藏되는 것
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전
국 여성관련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DB)구
축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다.

59년 文理大 불문과
졸업후 東亞日報 공채
1기로 입사, 16년간 사
회·여성정책을 다루다

全國 관련기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보니 자연스레 문제의
식이 몸에 스며든 것 같
다는 權은 「이론적
보장의 필요성을 느껴
梨大 대학원에 진학, 사
회학을 전공하게 된다.
현재는 성신여대 대학원
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연구분야는
「가족의 형성」이 주
정. 특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 「남
하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여성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있다.」 權
은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각
자의 능력은 충분히 성
숙해 있는데, 이러한 잠
재능에 불을 당기는
동기제공자로서의 역할
도 여성개발원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
한다.

불문과 한해 선배인
부군河東勳(58년 卒)·숙
명여대교수(동문과의 사
이)에 史羅(86년 自然大
卒)·연광고 카피라이
터(史軒(87년 自然大
·연합통신기자) 두 자
까지 서울대 1가족이
고 있는데, 權은 「우
연간이 살아 숨쉬는 사
회를 만드는데 서울대
이 선도적 역할을 떠맡
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잊지 않았

▲鄭然泰 (48년 工大)
卒·한국
영재학교
유학회장
·母校 명
예교수(4월8일 오전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
으로 별세. 향년 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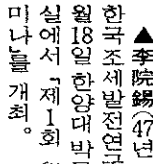
▲安南元 (56년 師大)
卒·서울
교원단체
연합회장
·건국대
교수(4월8일 오전1시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 향
년 61세).

▲金東熙 (63년 法大)
卒·母校
교수·4
월21일 오
후6시 주
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
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사
장」을 받음.

▲鄭昌鉉 (67년 法大)
卒·
한국교원대학교수·4월1
일
同校 제3대학(자연계열)학
장에 취임.



▲尹世元 (47년文理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전안 성화대학교 초대 총장. 서울대 개교.



▲李院錫 (47년 法大卒) 한국조세발전연구소장. 4월18일 한양대 박물관세미나실에서 제1회 조세학술세미나를 개최.



▲金顯洙 (49년文理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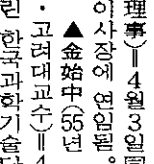
▲李商萬 (50년文理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貞錫 (54년文理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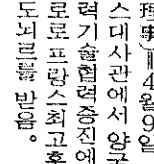
▲李允煥 (56년工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允煥 (56년工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允煥 (56년工大卒) 4월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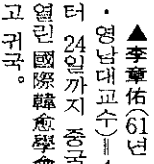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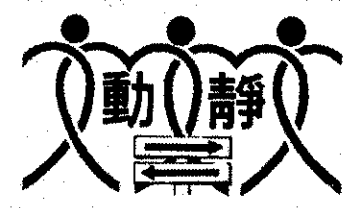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珍鏞 (63년醫大卒) 4월3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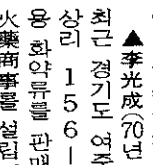
동정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 院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 3회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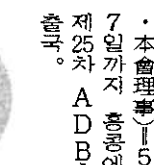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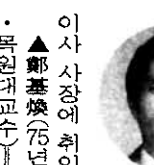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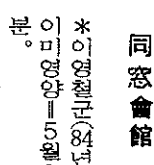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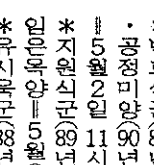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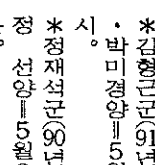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權五俊 (69년農大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李大雨 (77년環境大學院卒) 4월21일자로 총장 취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원인으로 추대됨.

3월 3일 ~ 3월 17일까지

▲박용남	▲박용진	▲박의식	▲박재성	▲박종길	▲박종호	▲박진민	▲박창호	▲박태룡	▲박형상	▲박병선	▲배승환	▲배영환	▲백승욱	▲변동필	▲변선호	▲서동균	▲서우원	▲서희원
▲박용승	▲박원규	▲박의웅	▲박일재	▲박정도	▲박종민	▲박준호	▲박찬정	▲박태권	▲박용원	▲박용춘	▲배영호	▲배성태	▲백성기	▲변복수	▲변재복	▲서성철	▲서필수	▲석영대
▲윤식박	▲윤의병	▲윤재건	▲윤태식	▲이민	▲이진재	▲이관용	▲이광선	▲이근우	▲이기훈	▲이난기	▲이대진	▲이덕선	▲이동훈	▲이동국	▲이범룡	▲이병철	▲이병환	▲이봉주
▲윤여경	▲윤장섭	▲윤재섭	▲윤하삼	▲이진규	▲이경보	▲이광근	▲이규대	▲이근우	▲이길범	▲이남식	▲이대우	▲이덕수	▲이동한	▲이영원	▲이민우	▲이병기	▲이보호	▲이상열
▲장영기	▲장진양	▲전국전	▲전대원	▲전문화	▲전윤호	▲장광욱	▲장대환	▲장동훈	▲장석권	▲장수선	▲장수철	▲장영규	▲장인환	▲장천현	▲장태규	▲정희준	▲조수현	▲조용준
▲장원갑	▲장호엽	▲전근두	▲전동각	▲전성우	▲전창선	▲정구필	▲정동진	▲정병진	▲정석우	▲정수현	▲정원원	▲정우만	▲정진선	▲정충진	▲정현철	▲조근행	▲조순희	▲조용철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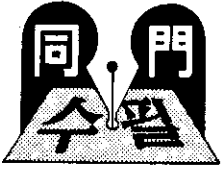
[illegible]

개 같은 人生?

원숭이 해에 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나더러 영리한 원숭이를 준다 해도 나는 사양할 것이다. 영리한 원숭이보다는 그저 세살짜리 아기쯤 되는 지능을 가진 강아지가 훨씬 재미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의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들었을때 한마리 갖다가 기를까 한 것은 나였는데 아내는 팔짝 뛰면서 그걸 어떻게 기르느냐 했었다.

어쩌나 극성이고 샘꾸러기인지 이런 의젓한 신사가 된 문치의 앞길을 손살같이 가로 막으며 밖에서 돌아오는 여주인의 발 밑에 발랑 들어누우면서 쓸어 달라고 애교를 편다. 그녀의 이름



을 가로되 코코라 했다. 이렇게 되니 개와 개 사이, 개와 인간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관찰하고 경험하게 되어 ethology라는 학문이 있을만 하구나 생각되기도 한다. 주

정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근엄한 山水畫 말고도 아주 귀여운 강아지, 사납고 씩씩한 개, 고양이, 다람쥐, 꽃과 나비들을 그렇게도 애뜻한 사람으로 섬세하게 그려왔는데 언제부터 동물들이, 특히 개가 인간의 욕설로 변했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거칠고 여유가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약 3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고 그곳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보고 심지어 개와 함께 전차도 타고 강의가에 개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양사람은 목축민족의 후예라 동물적이라는 혐오감을 가졌었는데 요즘 한국에도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꽤 있는것 같고 이에 대해 아마 말도 많을 것이다.

李符永 (59년 醫大卒·모교 精神科 교수)

인이 나가면 현관 앞에 앉아 올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몹시 야단을 맞으면 책상 밑으로 숨어들거나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수도 있고 잘못을 지적하면 겸연쩍어 하는 시늉을 하며 눈치를 보기도 하고 꺼민 눈으로 주인을 흘려다리며 바라보며 뭔가 생각하는 듯, 때로는 성급하게 조르는 듯, 이놈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쳐지는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누가 개더러 佛性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누가 개더러 良心이 없다 하겠는가.

集團的無意識은 동물의 본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동물의 뿌리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애

내 글을 읽는 사람 가운데도 아마 부르조아 취미라고 이맛살을 찡푸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는 어디까지나 개일 뿐 사람일수는 없다. 어느날 나는 문치와 코코가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를 입에 물고 서로 필사적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쓰다 버린 노끈이었다. 그 하잘것 없는 노끈 한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쓰다니!

내가 이 강아지들의 싸움을 내려다 보듯, 하느님이 人間世를 내려다 보고 있다면 오늘 이땅의 인간들의 작태가 이러한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막상 하얀 털이 길다랗게 눈을 가리고 콧등이 까만 반 순종 강아지가 집에 들어온 뒤로는 완전히 한식구가 되고 말았다. 아이들로부터 문치라는 이름을 얻은 이 솜눈은 오줌 똥도 곧 잘 가리고 앉아! 손! 공가져와! 빠이 빠이! 기다려! 같은 몇가지 말을 알아듣고 재주도 제법 잘 할줄 알게 되었는데 그림의 개는 자꾸 새끼를 낳아서 또 한마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은 코코아 색깔의 곰솔머리를 한, 어찌보면 원숭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머슴같이 바삭 마르고 못생긴 암컷인데 성격이

1차 실험을 해서 경향을 알아보고 피검자에 요구를 재차 설명해 준 다음 2차 실험을 반복하여 확실하게 관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피검자(환자)에 따라서는 1회 실험의 결과가 불확실했을 때 5~10분간 쉬었다가 재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1차 실험을 해서 경향을 알아보고 피검자에 요구를 재차 설명해 준 다음 2차 실험을 반복하여 확실하게 관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피검자(환자)에 따라서는 1회 실험의 결과가 불확실했을 때 5~10분간 쉬었다가 재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피검자(환자)가 너무 허약하여 오링의 힘이 약해서 검사를 못할 때나 어린아이(유아)에서 7~8세까지의 경우에 도 제3자(가족, 어머니, 아버지)를 중개해서 오링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손목에 걸고 힘껏 들어 올리며 저울의 눈금을 조사해 두고(기본형), 왼손에 식품을 쥐고 오른팔의 힘을 조사하며 눈금을 살펴보면 유익한 식품과 해가 되는 식품의 눈금차가 3~4kg 씩은 나타나곤 한다. 해

하고 좋아하였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니 오른팔이 피로해져서 힘이 점점 약해지니 부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기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지하고 말았다.

사대村惠昭박사가 1970년초에 연구한 것으로 「오루테스트」라고도 한다. 필자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1988년 2월이었는데, 한번 보고 대단히 흥미를 느끼고 곧 실험을 하기 시작했

검査(의사)와 被檢者(환자)는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실시한다. 피검자는 시계, 반지, 금속성의 장신구를 전부 빼놓아야 한다. 이런 금속품은 電磁波를 방해하고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 힘을 기억해 둔다(기본형). 다음은 피검자의 왼손에 한가지색의 식품, 약품, 음료수 등을 쥐게 하고 오른손의 오링의 힘을 조사한다. 이때 오링의 힘이 먼저 조사한 기본형과 같이 강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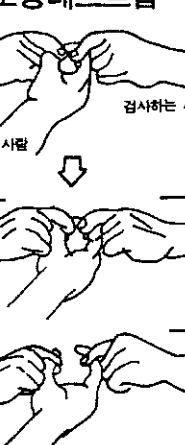
피검자의 오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점자의 물 짚은가락 한 개의 힘으로 버티지 못할 때 또는 짚은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합하여 동시에 오링에 꽂고 벌리며 조

또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피검자의 오링의 힘이 너무 세어서 실험(조사)에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힘이 조금 약한 제3자로 하여금 왼손으로 피검자의 오른손을 잡게 하고, 제3자가 취한 오른손의 오링의 힘을 조사하면 피검자의 성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제3자의 체질과는 관계없이 피검자의 체질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링의 힘이 약해지면 몸에害가 되는食品

오링테스트법



腕力調査第3方法 20kg 용량의 매달아 다는 저울(정유점에서 천정에 매달고 아래쪽의 고리에 고기를 걸고 무게를 다는 저울)을 구입, 상부를 무겁고 두터운 송판에 고정하여 밑으로 가게 하고 하부의 고기다는 고리를 위로 오게하여 끈고리를 맨다. 이 끈고리를 오른팔 손목에 걸고 힘껏 들어 올리며 저울의 눈금을 조사해 두고(기본형), 왼손에 식품을 쥐고 오른팔의 힘을 조사하며 눈금을 살펴보면 유익한 식품과 해가 되는 식품의 눈금차가 3~4kg 씩은 나타나곤 한다. 해

가 되는 식품과 유익한 식품을 왼손에 쥐었을 때 오른팔의 힘의 강도가 숫자로 나타나고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감탄

바이디탈 오링테스트(Bi-digital O-Ring Test)는 미국에 살고 있는 日本人의 테스트방법

여러 가족들, 병원직원들 실험해본 결과 체질과 식품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즉, 체질에 해가 되는 식품을 왼손에 쥐면 오른손의 오링의 힘이 약해지고, 유익한 식품을 쥐면 오링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검자는 양손을 몸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앞으로 들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끝과 둘째손가락 끝을 맞대고 O-Ring을 만든다. 검査는 양손의 둘째손가락을 이 오링에 꽂고 좌우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때 被檢者는 오링에 최대의 힘을 주고 고점자는 이때의 오링

이 식품은 유익한 식품이고, 쉽게 벌어지면 해가 되는 식품이 된다. 각 물질의 電磁波는 종아, 비닐, 유리, 통과 하고 실험상 지장이 없으니 식품을 종이봉지, 비닐봉지, 유리병에 넣어 서 검사해도 잘 된다. 또 식품의 양은 실험할 만큼 한 방울이라도 반응이 나타나다(그림)

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피검자의 오링의 힘이 강해서 안 벌어질 때는 둘째손가락 대신 셋째손가락으로 다음에는 넷째손가락 또는 새끼손가락으로 만든 오링을 써서 힘을 조사해 보고, 제일 잘되는 오링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식품에 대한 반응(손가락 힘을)을 조사해야 한다.

四象體質 진단법

(2)

李明靄 (39년 醫大卒·모교명예교수·대림의원장)

腕力調査第3方法

가 되는 식품과 유익한 식품을 왼손에 쥐었을 때 오른팔의 힘의 강도가 숫자로 나타나고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감탄

피검자는 양손을 몸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앞으로 들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끝과 둘째손가락 끝을 맞대고 O-Ring을 만든다. 검査는 양손의 둘째손가락을 이 오링에 꽂고 좌우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때 被檢者는 오링에 최대의 힘을 주고 고점자는 이때의 오링

이 식품은 유익한 식품이고, 쉽게 벌어지면 해가 되는 식품이 된다. 각 물질의 電磁波는 종아, 비닐, 유리, 통과 하고 실험상 지장이 없으니 식품을 종이봉지, 비닐봉지, 유리병에 넣어 서 검사해도 잘 된다. 또 식품의 양은 실험할 만큼 한 방울이라도 반응이 나타나다(그림)

新刊

情報社會論

—申允植(59년 文理大卒・데이콤 사장)外 共著



情報가 가치의 척도가 될 정도로 새로운 문명개화를 맞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사회론을 정립하기위한 시도로써 出刊된 책. 저

술자들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정책론적인 측면에서 비전문인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정보사회를 조망하고 있다. (756쪽・1만6천원・데이콤출판부)

가난구제는 나라가 한다

—姜慶植著(61년 法大卒・국가경영전략연구원理事長)



우리경제의 격변기에 財務部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의 경제 중심부서를 이끌어 온 著者の 회고록. 경제관료로서의 입문에서 아웅산사건, 장영자사건, 금융실명제 논란 등 저자의 체험과 경제사 裏面에 가

려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들이 수록돼 있다. (321쪽・5천원・삼과곰刊)

法藥學

—金博光編著(65년 藥大卒・모교교수)



藥毒物의 범위의 취급대상을 기술하면서 전문화 패가는 약학대학의 교과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응용학문인 法藥學에 대한 지

식을 담은 전문서. 약독물의 유형별로 상술하여 실제 재판과정에서의 응용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편찬했다. (329쪽・8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

靑少年學原論

—咸鍾漢著(70년 慶大卒・13代국회의원・本會理事)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학문으로서의 「靑少年學」이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청소년 자

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연구한 책. (411쪽・6천원・대

한교과서(주)刊

法이라는 이름의 電車

—安京煥著(70년 法大卒・모교교수)



著者가 대학강단에서 다루고 있는 「法과 文學」강좌의 내용과 특정 법이론에 관한 단상, 계몽성이 깃든 법률수상 등을 모은 두

번째 칼럼집. 저자는 이책을 통해 「법은 行路를 예상할 수 있어야하는 인간생활의 이정표」라 말하고 있다. (302쪽・4천원・교육과학사)

生活法律다이제스트

—李錫遠著(82년 法大卒・변호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을 위해 각각의 법률사례를 간결한 설명과 함께 만화 컷으로 풀어 쓴 책. KBS 「생활인의 법률사전」을 진행했던 저자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 (289쪽・5천원・현대정보문화사)

公演

소프라노鄭福珠 독창회

—5월 1일 호암아트홀

鄭동문은 70년 모교 졸업후 美인디애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악가로, 특히 詩와 음악의 접목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梨大 음대 성악과장으로 재직중. 푸셀, 로시니, 슈베르트, 김동진 등이 연주된다. 피아노 협연은 文龍姬(66년 音大)동문.

소프라노李愛姬 귀국독창회

—5월 2일 예술의 전당

모교 音大(87년卒)를 거쳐 獨트 로싱엔 국립음대에서 Diplom을 취득한 李동문은 그간 유럽을 무대로 연주활동을 해왔다. 이번 첫 국내무대에서는 R.스트라우스, 리거, 델리우스, 푸치니, 율프 등이 연주된다. 피아노에 蔡貞美(86년卒) 풀트엔 金熙淑(86년卒)동문이 각각 협연한다.

鄭善伊 첼로독주회

—5월 9일 세종소강당

84년 모교 音大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渡佛, 에콜 노르말 DSC과정을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수석 졸업한 鄭동문은 90년 귀국. 현재 코리아신포니에타 수석으로 실내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렌티니 소나타, 브람스, 베토벤, 슈만, 스트라빈스키 「이탈리아 모음곡」 등이 연주된다.

姜錫鍾 피아노오르간독주회

—5월 11일 명동대성당

80년 모교 作曲科를 졸업하고 獨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피아노 오르간을 전공한 姜동문은 명동성당 등에서 반주활동을 하는 한편 가톨릭신학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부활절에 맞추어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주제로 레퍼터리를 선정, 브람스의 푸가 마단조, 바흐, 베이스터, 보엘리, 레멘스가 오른다.

朴羅那 하프독주회

—5월 14일 예술의전당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만 준비된 무대. 흔히 쓰이지 않는 악기들과의 협연과 시나송이 곁들여진다. 朴동문은 82년 모교 입학후 줄

너, 현재 모교와 경원대 등에 출강중. 헨델, H.오펜, 뽈레, 본 윌리엄스의 「테너와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네개의 찬가」등을 연주한다.

서울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월 21일 예술의전당

元京洙(52년 音大卒・지휘)동문을 중심으로 주로 서울대인들로 구성된 이들의 신춘무대. 특히 이번 공연에서 협연하는 金在英(88년 音大卒・경원대출강)동문이 들려줄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1번 G단조가 이번 공연의 白眉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드리갈내악단 정기연주회

—5월 23일 예술의전당

朴敏鍾 전모교음악대학장(지휘)이 이끄는 이들의 열다섯번째 공연. 朱一葉(77년 音大卒・악장)동문의 협주로 비발디의 四季중 봄, 여름과 모차르트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 하이든 교향곡 101번 「시계」가 연주된다.

금호현악중주단 연주회

—5월 24일 호암아트홀

玄純伊(81년卒・제1Vn) 李炯錫(78년卒・제2Vn) 趙仲起(81년卒・바올라) 李承珍(80년卒・첼로)등 모교 音大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



이혜현(소프라노)



정인(첼로)



강현(오르간)



박나(하프)



이정(소프라노)



김재미(피아노)

리어드를 거쳐 지난 90년에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가진바 있다. 현재 중앙대 등에 출강하며 코리아신포니에서 활동중. 다경의 배우기, 그림자나, 라벨, 고드프루아, 푸르니에 등이 오른다.

테너 李相赫 독창회

—5월 19일 호암아트홀

78년 모교 音大, 대학원을 거쳐 美인디애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지난 85년 인디애나 폴리스 심포니와함께 베토벤의 「환상합창곡」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협연하면서 데뷔한 리릭테

된 이들의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4중주 A장조 K. 581(협연 金東雲・75년卒)을 비롯, 베토벤 등이 연주된다.

文龍姬 슈베르트피아노시리즈

—5월 26일 예술홀

禮音이 기획하고 있는 「全曲연주시리즈」의 일환으로 文龍姬(66년 音大)동문이 내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피아노소나타 12곡, 즉흥곡 2곡, 소품 5곡등 총19곡의 독주곡들을 연주한다. 文동문은 미시간 州立大교수를 역임하고 지난해 귀국, 경원대에 재직중이다.

국제콩쿨優勝

89년 모교 音大를 졸업하

모교新春음악회 盛了

모교 발전기금에 성원해 준 동문, 학부모를 초청, 謝恩의 행사를 겸해 열린 92년 서울대학교 신춘음악회가 지난 4월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崔主鎬회장, 金鍾云총장, 직장별동문대표와 각계인사들로 성황을 이룬 이날 공연은 모교 이남수교수의 지휘로 김민(파이올린), 박세원(성악), 김정규(피아노)교수의 연주에 이어 음대합창단, 관현악단의 화음이 어우러져 동문・사제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했다.



◇ 趙敏廷(하프)

고 현재 보스톤음대 박사과정에 있는 趙敏廷동문이 지난 3월 뉴욕서 열린 아티스트 인터내셔널콩쿨에서 하프 부문 우승을 차지, 서울대인의 기량을 또한차려 과시했다.

다. 오는 16일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2백주년 기념연주회」에 출연하는 趙동문은 이번 우승으로 내년 5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갖고 국제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